

입문

문답속에 흐르는 법리 감로수

■전통책4/문재현 옮김  
스승과 제자의 문답 사이에서 드러나는 명철한 법리. 그러나 선문답이 어떤 문답에 그칠 것인가. 법을 구하는 자의 갈증을 풀어주고, 싯된 견해를 짚어 정묘로 이끌어주며, 법상치 않은 문답 속에서 제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 올려주나, 이아말로 진정한 감로수라 할 것이다. 전통책이 전통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전통책은 전5권짜리 '바로보인 전통책'의 네 번째 권. 법리의 측면에서 깊이 살펴 기존에 번역 출간된 것보다 문인의 취지에 더욱 근접해 있다. 조사의 함 뜻을 제대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 이런 점에서 법리에 밝은 문재현 법사가 번역해 낸 이 책은 선불교가 가지는 특성의 맥을 짚고 갖가지 표현에 대한 진의를 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만 하다.

바로보인 18,000원 (02)597-2480



에세이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약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해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 아닌 (크 법연화경). 묘법의 약력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풀리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은 받아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리개를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향 12,000원 (051)625-9085



기타

신앙고백을 통한 종교적 삶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질시 호흡을 가다듬고 나자 막대한 목소리로 경전을 읽는다. 순간 2천5백년의 사공을 뛰어넘어 부처님이 나타난다. "마음은 나의 발이고 믿음은 나의 씨앗이다..." 생생한 부처님의 음성.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범한 진리. 이자 들고 싶었던 말씀이다. 다. 마음의 어둠이 벗겨지고 환희상에 사로잡힌다.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다가오는 느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갈야랑정). 이 책은 (갈야랑정)에서 가려놓은 1백개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 가르침을 마치 녹음테이프를 끝까지 들을 때까지 들려준다. 저자가 (갈야랑정)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들을 재현해 놓아 경전을 읽는 감동을 보여준다.

각 경절마다 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놓았으며, 경전 내용을 보강한 이야기와 경전에 드러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놓았다. 사찰 법회와 신명생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책이다.

장승 8,000원 (02)723-1679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시행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흔들리는 모습에 던지는 방향제시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청담스님 외 31인 지음

사람들은 인과의 법을 믿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무작정 앞으로 내달리기만 한다. 그 철저한 무책임성. 커다란 밥그릇을 독차지한 채 풀이없이 자신의 입에만 밥을 퍼넣는 이기심.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 갈대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가)는 이런 우리에게 삶에 대한 구짚음과 방향을 제시한다. 청담·효봉·경봉스님 등 25인 스님의 법문과 동아대 좌만연 교수 등 6인 지성의 글이 실려있다. 단편 에세이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의 묶음. 그 이야기를 속에서 깨달음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솔곡학 8,000원 (02)928-1871



금주의 추천도서

아함경을 통한 불교입문, 방향제시

■아함경으로 배우는 불교/반영규 지음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입문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만한 책. (아함경)은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전으로 꼽힌다. 구전되어 오던 부처님의 교설을 기억에 의해 정리·집성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경전보다도 부처님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고, 지혜로운 삶과 불도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경전과 교리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세상사는 이야기를 섞어 설명함으로써, 마치 수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다른 입문서와는 다른 특징이다.

(아함경)으로 불교를 배우는 까닭에서부터 불교의 역사와 기본사상, 붓다가 본 인간, 우리가 사는 세상, 수행 등을 주제로 엮어져 있다. 불교에 대한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참된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준다.



솔바람 7,000원 / (02)720-0824

수행자의 구도열정 고백

■덧없는 세월 속에 덧없는 깨달음 하나 얻게나/혜민스님 지음

혜민스님(도봉산 무문관)이 자신의 삶에 펼쳐진 한영들을 모든 차라적 에세이, 출가의 안연과 세상의 맛을 벗어난 자유로움, 함께 열거한 만남들이 산사의 숲내음으로 다가간다. 어둠을 벗어난 미련한 추억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세상을 뒤집어서 보는 풍혈한 생각, 그리고 침묵 거친 세상 속에 거칠어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가르침인가.

"불교의 말뚝 속에서 들여다 본 자유는 남편이 아닌 허다보기도자 푸러운 처절한 허망이었다"는 고백 속에 담긴 구도열정이 탁달하게 북돋아줄 내달한 독경소리로 일린다.

불내 7,000원 (02)323-7366



맑고 청빈한 얘기 '한폭 수채화'

■산에는 꽃이 피네/법정스님 지음

평생을 청빈한 삶을 실천해 온 법정스님(맑고 향기롭게 회주)의 법문이 때로는 거친 물결기처럼, 때로는 경허히 내리는 새까맣은처럼 녹아 내린다. 그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단순하면서도 가난하되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스님의 삶은 우리가 간직하는 '종교로운 감동'에서 벗어나는 깨우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깨우침을 류시화 시인이 법정스님의 말과 법문을 책으로 옮기면서 고구마를 캐는 듯한 풋풋한 흥내로 담아냈다. 명동성당 축성 1백주년 기념강연과 작은 모임에서의 법문, 서너 사람이 모인 사색에서 들려온 얘기 등 아주 다양한 내용이 마치 시어처럼 맑고 잔잔하게 흐른다.

동쪽나라 7,000원 (02)283-1941



발간 즉시 5세 돌입

임경택 교수의 숨쉬는 이야기

11월 2일 KBS-1TV '하림아담' 출연

삼풍 사고 현장에서 **숨**으로써 생존자 3명을 찾아낸 임경택 교수 그가 3년 만에 밝히는 단전호흡과 기의 실체!



어두컴컴한 지하공간으로부터 전해지는 실오라기같은 생기(生氣) 임경택 교수는 호흡을 수련하는 중에 그 생기를 감지하고 곧장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생존자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 그들을 구조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은 과연 단전호흡수련만으로 가능한 일인가? 20여 년간 호흡수련을 해온 임경택 교수가 기와 단전호흡(단침과 열기)의 모든 것을 밝힌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행생, 인내심과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선수, 마음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단전호흡법을 공개합니다.

신국문 / 12,500원

■30년 참선 수행한 스님도 이 책을 봅니다.

신간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건강법을 찾는 DIY건강법 형상의학!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조성태 지음

생긴 모습에 건강이 숨어 있다

사람은 다르다. 양도 다르다. 생김 모습이 다르고, 건강법이 다르다. 혼자 사는 것도 병이고, 머리가 빠지는 것, 맘을 지나치게 많이 품는 것도 병이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을 앓을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났고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건강법을 찾을 수 있는 비밀의 열쇠도 가지고 태어났다. 문제는 과연 자기 자신의 생김새를 정확히 읽어 자신만의 건강법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다. 당시는 어떤 모습으로 건강법을 찾을 것인가?

신국문 / 12,000원

■현재 BBS불교방송 라디오 상담 중.

신간

인연 발길  
남산 스님의 기쁨은 깨세이름  
닿는 대로  
닿는 대로



파스 한 장으로 지치고 고달픈 중생들을 달래주는 남산스님의 넉넉한 포교일지! 가는 곳마다 좌충우돌, 야단법석, 황당무계한 일을 벌이지만 그 속에 자비가 있고 부처가 있다.

스님에게 행복이라든가 득의 흥난 정미, 잘 서서 서주 정사하는 신묘사 건부, 잡자는 좌부의 유익을 주물러 시수를 벌이 낸 지면, 형식 및 고쳐달라니 는 다섯 가지가 올 만한 원으로 때우는 구두의 영감, 스님에게 참된 법리는 성경이, 단침 불사 해달라고 해주는 스님 등 포복절도할 이야기들이 거침없이 펼쳐집니다.

신국문 / 12,000원

■SBS서울방송 '살맛 나는 세상' 출연 예정.

가난아 비켜라 내가 간다

낯은 자전지 한 대로 양장사를 시작해 국내 굴지의 제약 회사로 커우기까지 동성제약 이진규 회장의 담과 눈물의 성공 이야기!

이진규 지음 / 신국문 / 12,500원

성형 수술 A부터 Z까지 양두병 박사의 미인 만들기

미용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 얼굴형, 신체 부위별, 유형별로 성형수술방법, 얼굴 미학, 최신 성형 정보까지 일반인들이 성형수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양두병 지음 / 46면 / 신국문 / 12,500원

IMF 시대의 신규정주치의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천 원짜리 파스 한 장으로 단병을 다스리는 파스요법의 신비한 비밀을 알기 쉽게 공개합니다.

남산 스님 / 신국문 / 12,000원

고금리 강제 인하 위해 실업 대란 유도했다! 김대중 경제 속지 않고 읽는 법

병폐의 경제 질서 치유 않고 총수요확대에 급급하여 구조 조정 변조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모른다.

김종현(공신은 삼남실업회) / 신국문 / 12,000원

탐그루! 한국 환타지 문학의 결정판! 전 12권, 곧 출간됩니다. PC통신 절찬리 접속 중(나우누리, 하이텔)

명상  
영업국 TEL:733-4277-8 FAX:733-4276  
편집국 TEL:739-2520 722-5970 FAX:739-7709